

광주·전남 외국인 소유 주택 ‘2079가구’

단독주택 514가구·공동주택 1565가구
전국 10만4000가구…중국인 절반 소유

외국인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보유한 주택이 총 20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광주·전남지역 주택은 총 2079가구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외국인 보유 주택은 719가구로, 이 중 공동주택이 622가구, 단독주택이 97가구였다.

전남에서는 모두 1360가구(공동주택 943가구, 단독주택 417가구)가 외국인 소유였다.

전국적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10만4065가구로, 지난해 12월 대비 0.15% 증가했다. 국내 전체 주택 가운데 외국인 소유 비중은 0.53%로 나타났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인 10만 247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만5484가구

(72.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방은 2만8581가구(27.5%)였다. 이 가운데 광주와 전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방 외국인 소유 주택의 약 7.3%(2079가구)에 해당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만794가구(39.2%)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4186가구(23.2%), 인천 1만504가구(10.1%), 충남 6455가구(6.2%), 부산 3160가구(3.0%)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적별 소유 현황에서는 중국 국적이 5만8896가구(56.6%)로 절반을 넘었고, 미국 2만2455가구(21.6%), 캐나다 6433가구(6.2%), 대만 3392가구(3.3%), 호주 1959가구(1.9%) 순

이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9만5150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8915가구였다. 보유 주택 수는 1채가 9만5717명(93.4%)으로 가장 많았으며, 2채 소유자는 5421명(5.3%), 3채 이상 소유자는 1399명(1.3%)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829만9000㎡로, 지난해 말보다 0.1%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99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늘었다.

토지 소유 국적은 미국이 전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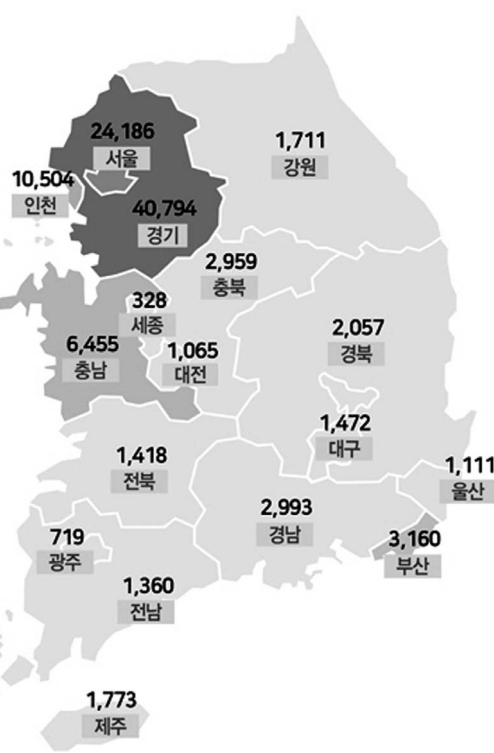
53.3%로 가장 많았고, 중국(8.0%), 유럽(7.1%), 일본(6.1%)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보유 면적은 경기도가 4만 9651㎡(18.5%)로 가장 컸으며, 전남 3만9310㎡(14.7%), 경북 3만6335㎡(13.5%) 순이었다. 광주는 2586㎡(0.1%)에 그쳤다.

토지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67.7%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 22.0%, 레저용지 4.4%, 주거용지 4.3% 순이었다. 외국인 토지 보유 주체는 외국 국적 교포가 55.4%로 가장 많았고, 외국법인 33.6%, 순수 외국인 10.7%, 정부·단체 0.2% 등이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국 주택소유현황

(단위:동(호)수)



10월 건설수주·소비 ↑…광공업 생산은 ↓

공공부문 건설경기 회복·소액 소비 늘어

지난달 광주·전남의 건설수주액과 소비는 상승한 반면 광공업 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광주·전남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건설수주액은 768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했다.

주요 종합건설업체의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 9조1073억원 가운데 광주 비중은 0.8%였다.

광주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확대에 따라 공공부문이 167.1% 급증한 반면, 민간부문은 부동산·기타 제조업 부진의 영향으로 13.3% 감소했다. 건축부문은 주택·사무실·점포 수주 감소로 63.3% 줄었으나, 토목 조성 증가로 토목부문은 786.2% 크게 늘었다.

전남의 건설수주액은 173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2% 증가했으며, 전국 대비 비중은 1.9%였다. 공공부문은 공기업·기타 공공단체 발주가 늘면서 115.1%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기계·장치와 석유·화학 분야 부진으로 12.6% 감소했다.

소매 판매 역시 광주·전남에서 모두 늘었다.

광주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05.3으로 전년 동월(99.8) 대비 5.5% 증가했다. 백화점 판매액이 5.1%, 대형마트 판매액이 6.3% 각각 늘었다.

전남은 82.9로 전년 동월에 비해 0.2% 늘었다. 음식료품, 오락·취미·경기 용품, 신발·가방 소비가 증가했고 의복, 가전, 화장품 소비는 감소했다.

반면 광주·전남의 광공업 생산은 모두 감소했다.

광주의 광공업 생산지수는 109.3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 줄었다. 전자·통신, 전기장비, 의료정밀광학에서 증가했으나 기계 장비, 고무·플라스틱, 금속가공 등이 감소했다.

전남의 생산지수는 100.1로 전년 동월보다 5.7% 감소했다. 석유정제, 기계 장비, 전기장비 등에서 증가했으나 기타운송 장비, 화학제품, 1차 금속 등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대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신보, 김장김치 나눔활동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최근 ‘2025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에 참여해 김장김치 200kg을 담가 전남성노원(노인요양시설)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김장 나눔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돌기성금으로 재원을 활용했다. 염규승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따뜻한 마음을 담은 김치 한 포기가 어르신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신보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 ‘ESG 경영 선도’ 위상 강화

전 분야 혁신 추진…탄소중립·사회공헌·투명경영 성과

광주도시공사가 ESG 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입증하고 있다.

30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를 아우르는 ESG 경영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전략으로 연결하고 있다.

먼저 환경(E) 분야에서는 ‘2045 탄소중립 도시 광주’ 실현을 목표로 PDCA 기반 탄소중립 추진 체계를 구축해 사업 전 과정에 친환경 가치를 적용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기후 인식 교육, 에너지 절감 캠페인,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등 생활 속

실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ISO 14001 인증 5년 유지와 지난해 대한민국 ESG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사회(S) 분야는 올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으며 성과를 입증했다. 공사는 ‘시민과 함께,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도시공사’라는 비전 아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전략을 마련하고, 전사 워크숍과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임직원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영호남 교류 체계인 달빛동맹을 기반으로 농촌 일손 부족 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인·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지역 상생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수해 복

구, 군 공항 이전지역 농가 특산물 구매, 한일 문화 확산 등 사회적 책임 활동도 폭넓게 이어가고 있다.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투명경영을 핵심 가치로 삼고 주요 경영 정보를 공개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5년 연속 유지하며 공공기관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김승남 사장은 “취약계층 지원, 탄소중립 실천, 청렴 기반의 투명경영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ESG 관점에서 재정의하며 지역사회 공헌 인준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 가치를 더하는 ‘광주의 미래 설계자’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

목포시 사회공헌활동 펼쳐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는 최근 ‘2025년 전기공사 기업인 사회공헌 실천의 날’을 맞아 목포 유달동, 만호동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회와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김영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장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과 전기공사협회 임·위원, 목포시 경영자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 전기사랑 봉사단은 유달동과 만호동 내 25가구를 방문해 LED 전등 및 스위치 교체, 노후 전선 등 설비 개보수, 안전점검 등의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쌀과 라면 등 500만원 상당의 생필품도 함께 전달했다.

김광길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준 김원이 의원과 각 지역에서 재능기부를 위해 한걸음에 달려온 임·위원들에게 감사を 전한다”며 “나누고 봉사하는 전기공사업체의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식

청년 구직단념 해소 나서

광주금융사회복지협회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는 최근 광주 청년도전지원사업 합동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동 수료식은 청년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 베이커리 체험과 또래지원단 ‘금융이서포터즈’ 성과 공유, 청년 진로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광주시, 5개 자치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관 연계, 청년 유관 기관 10 여곳과의 업무협약(MOU), 또래지원단 ‘금융이서포터즈’ 활동,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 등을 진행하며 청년의 구직단념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섰다.

구문정 센터장은 “청년의 구직단념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기관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효과적인 사업 운영과 청년 중심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금융사회복지협회는 지난해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평가 ‘우수기관’에 이어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에 연속해 선정되는 등 청년정책분야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송대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는 최근 여수 유달마리나호텔에서 ‘AI Day with HRDK, 2025년 4분기 기업 네트워크 라운지’ 행사를 개최했다.

산인공 전남지사, 기업 네트워크 라운지 행사

AI 기술 변화 맞춤형 인재육성 전략 공유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는 최근 여수 유달마리나호텔에서 ‘AI Day with HRDK, 2025년 4분기 기업 네트워크 라운지’ 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네트워크 라운지는 국정과제 ‘AI 기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연계해 지역 산업 현장에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일학습병행 및 사업주훈련 참여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AI 기술 변화에 맞는 기업 인재육성 전략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행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는 스마트인재개발원의 AI 전문 강사를 초청해 국가 AI 정책 방향, 산업 현장의 활용 사례, 기업 HR·교육에 적용 가능한 실

적 AI 활용 기술을 소개했다.

또한 참여기업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남 동부권 기업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는 기업 맞춤형 훈련 모델 개선,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와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태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지사장은 “AI 기술은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며 “지역 기업이 미래 기술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공단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AI를 배우자” 지역 상인 열정 ‘후끈’

광주경제일자리재단, 제2차 찾아가는 현장교육 성황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추진 중인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지역 상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최근 수완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1차로 서구 골목형상점가 상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수완상인연합회 소상공인 63명이 참여해 AI 기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받았다.

재단은 올해 연중 총 5회, 100명 교육을 목표로 운영해왔으나 1·2차 교육만으로 이미 목표 인원을 초과 달성했다. 상권 내 교육 수요가 예상보다 높아 연내 한 차례 추가 교육을 진행한 뒤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육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매장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AI 활용법, 홍보 콘텐츠 제

작 실습 등 실무형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참여 상인들은 매장 홍보 이미지와 영상 제작을 직접 체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진광중 수완상인연합회 회장은 “상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이었는데 기대 이상의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AI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63명 상인들의 열정에 놀랐다”며 “실제 매장 운영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 교육을 통해 상권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